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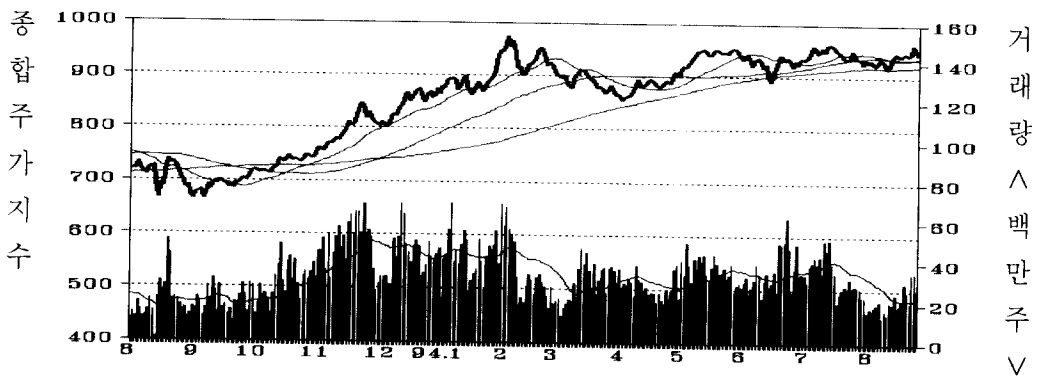
재상승을 위한 단기 조정

朴鍾坤*

자금시장 경색속에 소폭 상승

최근 크게 우려되고 있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는 통화긴축을 강력히 시행했다. 이에 따라 회사채 금리가 13.4%까지 오르고, 콜금리는 법정 최고 수준인 25%가 여러날 지속되는 등 시중 자금사정이 급속히 경색되었다. 이러한 증시 주변자금의 고갈로 8월 초 주식시장은 약세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8월 중반부터는 銀行 支準이 무사히 넘어가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고치(974.26 P) 수준에 이르렀다.

8월 중순 이후 주식시장 상승세를 이끈 종목은 주로 半期 실적이 크게 호전된 종목과 최근 급속히 경기가 호전됨과 동시에 일본과 미국 경쟁社 공장 화재로 상대적 이익이 기대된 유화주였다. 여기에 삼성전자, 이동통신, 포철 등 초 우량기업의 주가 상승도 주가지수가 연중 최고치에 근접하는 데 일조를 했다. 그러나 8월 후반에 접어들면서 감독기관의 주가 작전설에 대한 매매 심사와 함께 추가 매수세의 소진 및 단기 급등에 따른 이식 매물의 출회로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940 포인트대로 내려앉았다.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외국어대학교 석사, 증권·금융 전공.

단기 조정 불가피

8월말 실적주 및 초우량주의 상승 탄력이 한풀 꺾이면서 유화주와 제지주 및 中低價 大型柱도 조정에 들어간 느낌이다. 이는 시장 매기를 응집할 만한 主導柱가 사라지면서 장세도 혼미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종합주가지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우선주들이 전월말에 크게 폭락하면서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지난 2월 이후 지속된 장기 조정 국면에서 8월의 일시적인 주가 상승은 거래가 일부 실적주 및 초우량주 등에 편중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거래대금이 고객예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예탁금 회전율이 8월 최고치를 기록한 22일 31%를 기록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탁금 회전율이 30%를 넘으면 증시 과열로 인식되는데 주가가 연중 최고치였던 지난 2월 2일엔 38%였고 연중 최저치였던 6월 5일에는 18%를 나타냈다.

또한 그동안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던 기관화 현상도 변화를 보여 최근 정부의 통화 긴축 및 투신사 특융 상환 등으로 기관 매매 중심이 은행 및 투신사에서 증권사로 이전되면서 단기 매매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세를 이끌어갈 주도주가 쉽사리 부각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조정 양상은 불가피할 것 같다.

실적주 및 우량주에 투자

9월중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조정 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조정 기간은 차기 상승에 대비한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요하는 시기이다.

7월말 이후 장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정부의 통화 정책은 9월 이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해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실명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통화 방출로 금년에는 통화계수를 맞추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매기가 응집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증시는 주가지수 1,000 포인트에 도전할 것이다.

9월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여전히 지난 수개월간 주식시장을 주도해 왔던 우량주(Blue Chip)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유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 외에 그동안 반기 실적이 가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주식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일부를 처분해야 할 것이다. 그대신 연말 실적을 대비한 매출액 증가가 큰 기업이나 경상이익이 크게 증가했으나 8월 실적장에서 도외시되었던 종목의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